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3호 [루게 제25141호] 주제104(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 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자랑찬 전변의 해, 승리의 해인 2015년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이 1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불리한 어황 및 일기조건속에서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사계절 바다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하고 당중앙위원회 트락에 틀어선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올해 12월에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틀어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 회의실의 주인공들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이 해마다 이곳에서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과업을 받고있다는것은 물고기잡이전투가 곧 인민군대싸움준비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만나니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보내주시려고 것처럼 마음쓰시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경제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과업들 중의 하나가 고기배를 대대적으로 무어 물고기를 많이 잡을데 대한 문제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보존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야전렬차의 짐무탁에는 장군님께서 순직하시기 몇시간 전에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해 줄데 대하여 친필로 비준해주시는 문건이 놓여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물고기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생각이

나서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인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 불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온 나라가 축복해주도록 한것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혁명의 한 전선에 뻗치고 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을 관철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에서 순결한 량심을 바쳐온 동지들의 그 마음이 소중하고 또 누구나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한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올해 수십만이상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이룩하고 동해포구에 《이제어경》을 펼쳐놓을수 있는것은 당정책을 법으로 여기고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결사전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동해전역에서 이룩된 놀라운 전과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부모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애국의 열정과 기쁨을 더해주었다고 하시면서 이 기세로 나간다면 가까운 앞날에 인민군대의 모든 군부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짙 차넘치게 할수 있으며 황금해의 새 력사를 반드시 창조할수 있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황금해 력사창조의 선구자들, 당의 수산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념으로 간직하고 온넛과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우리 당과 조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한시바삐 만나 고무해주고 새로 자라난 혁신자들의 손도 잡아보며 가슴에 빈쩍거리는 혼장과 메달들을 달아주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